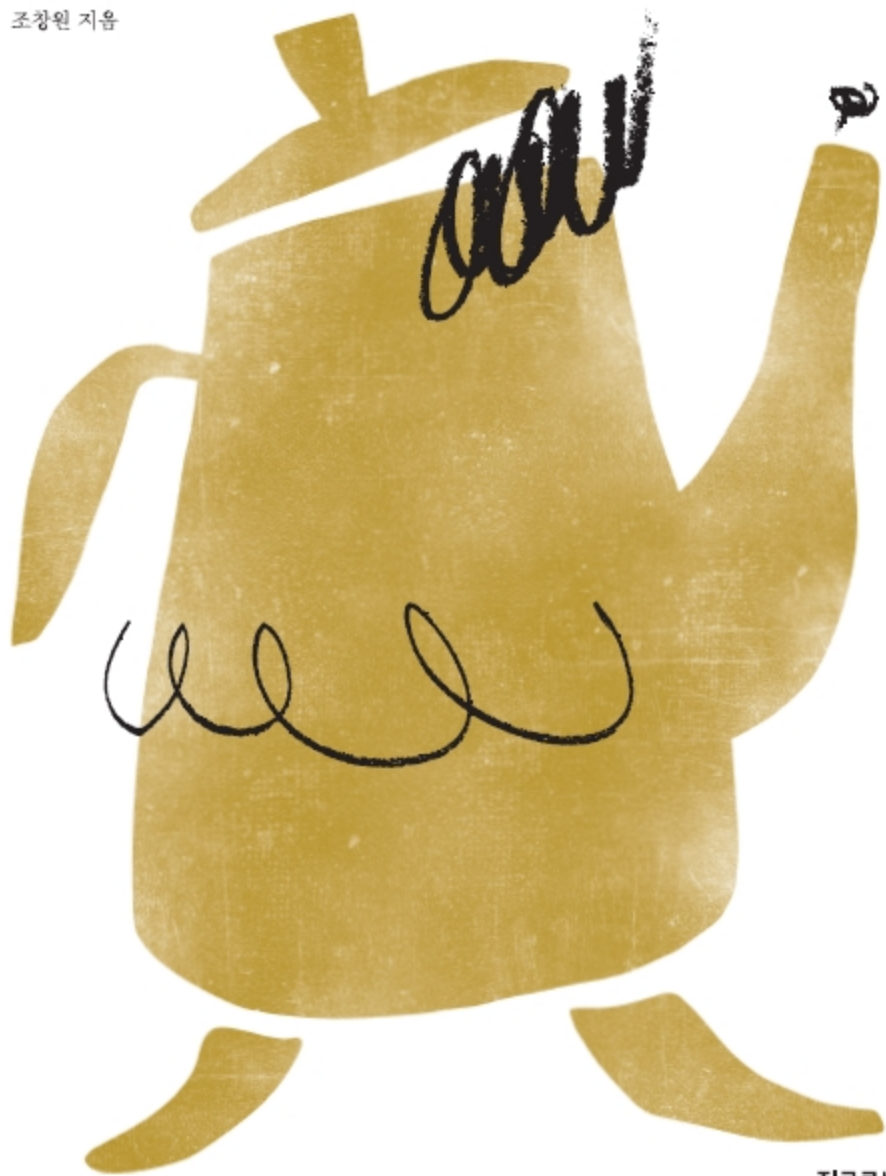


Object
in
Garbage

조청원 지음

일상을 바꾸는
쓰레기들



지콜론북

는 밝고 화려한 색상의 의복이다. 보통 한 장의 천으로 되어, 허리를 둘러 어깨에 걸치는데 몸의 형태에 따라 우아하게 떨어지면서 여성미와 신비로움을 한껏 드러내준다. 한눈에 봐도 많은 정성이 들어간 아름다운 옷이지만 다른 옷과 마찬가지로 닳고 해지면 결국 버려진다. 그런데도 전통의상을 재활용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오래된 한복을 전혀 다른 용도의 원가로 재사용한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 전통의상인 사리를 재활용해 의복으로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미를 끌어낸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다. 스튜디오 에이브니^{Avni}는 오래되고 버려진 실크 사리를 모아 지속가능한 텍스타일 쿠션을 만든다.

스튜디오 에이브니는 에이브니 세즈팔^{Avni Sejpal}이 인도에서 운영하는 종합 디자인 스튜디오다. 에이브니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런던에 있는 첼시 아트&디자인 대학^{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에서 공부했다. 직물업을 해온 가족의 영향인지, 건축가라는 또 하나의 직업 때문인지 그녀는 평면의 천을 입체적인 형태로 만드는 실험을 서슴지 않는다. 천연 재료와 기하학적 형태를 연구하고 숨씨 좋게 다루며 색다른 재료에 내재한 특질을 끌어내 새로운 문맥을 만든다. 에이브



Pompom Stool

- by Studio Avni

인도의 전통의상 사리를 재활용해 작은 방울들을 만들고 이 방울들을 연결해 의자 커버를 만들었다.



니는 사리를 모아 쿠션을 만들고 스툴, 벤치 등 다양한 의자와 소품을 만드는 '사리의 탐험가'다.

에이브니의 의자들 중 <폼폼pompom 시리즈>는 귀엽고 유머러스한 감각으로 집 안을 화사하고 즐거운 장소로 만들어준다. 공기방울 위에 앉은 요정, 꽃잎에 앉은 나비의 기분을 가늠해보게 한다. <폼폼 시리즈>는 시각적으로 재미있는데다 촉감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 매력이다. 작은 방울은 100% 천연 면을 사리 천으로 감싸 만들었고 이 방울들을 연결해 하나의 커버를 만들었다. 다양한 색깔, 패턴, 버전으로 만들었고 지퍼를 달아 씌우고 벗기기에 편리하다. 나무 역시



Pagri Stool
- by Studio Avni

이슬람 문화권에서 남성이 머리에 쓰는 터번에서 영감을 받아 화려한 스툴을 만들었다.

인도 지역에서 찾은 나무를 사용했다.

〈파그리 스톨 Pagri Stool〉은 인도 왕족의 터번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다. 인도에서 비롯되어 이슬람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터번은 지역이나 종교, 계급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 색깔이 있다. 감는 법에도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주름을 잡아서 튕림 모양으로 감아 올린다. 머리 위에 꽃을 올린 듯 아름답고 독특한 모양새가 재조명을 받아 최근에는 여성들의 최신 패션으로 유행하기도 했다.

터번 중에서도 시크교 방식의 터번인 파그리 Pagri는 명예와 존경의 상징이다. 색에 따라 의미도 다른데 흰색은 평화를 상징해 주로 노인들이 착용하고 붉은 연상시키는 분홍색은 결혼식에서 착용하는 식이다.

에이브니는 이외에도 다양한 인도인들의 옷차림이나 몸 치장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한다. 오래된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인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인도 문화를 디자인으로 표현해 가구에 담는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에이브니가 꽃을 피우는 방법은 자신의 뿌리를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